데스크시각

김미은

강시장 1년과 '자스민 광주'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랐다. 지난 6월 27일 광주시가 국제아리랑축제 개최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다.

강운태 시장은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광주비엔날레가 회화 중심의 세계 축제이므로 격년으로 '소리' 중심의 세계적 축제를 여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행사 준비를 지시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중심이 돼 내년에 아리랑 축제를 열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지나친 속도전 문제

당시 기자가 놀란 이유는 광주 브랜드 공연 '자스민 광주'가 생각나서였다. 지난 2월 중순 제작 계획이 발표됐을 당시 4개월만에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계속 의문을 갖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브랜드 공연 제작은 강 시장의 주문 사항이었다. 취임 전부터 강 시장은 대표 브랜드 공연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광주문화재단이 이 사업을 추켜들었다. 막 출범한 재단 역시 역점사업이라며 의지를 불태웠지만 문제가 불거졌다. 제작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거였다.

강 시장이 영국 에딘버러시와 체결한 공연 교류 MOU 때문에 첫 공연일자가 7월 2일로 잡혔고, 8월 중순에는 에딘버러 무대에 서야했다. '창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시 공무원들은 '시장님 관심 사항'에 대한 성과물을 독촉했고, 작품을 준비하는 재단 역시 이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지난 2일 브랜드 작품 '자스민 광주'가 공개됐다. 에딘버러 공연까지 합치면 10억여 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인 '자스민 광주'는 실망스러웠다. "이게 광주의 대표 브랜드 공연인가"라는 부분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았다. 행여 '자스민 광주'가 작품성면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 해도, 이런 식의 문화정책 수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아리랑 축제' 역시 시장 지시사항이라는 점 때문에 시 공무원들과 문화재단이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또 다시 행사 개최를 밀어부칠까 놀랐던 것이다.

강운태 시장이 취임한 지 막 1년이 지났다. 광주비엔날레 창설을 주도했던 문화 CEO 등장은 지역 문화계에 큰 기대감을 줬다. 어번폴리 등 추진력이 돋보이는 사업에 대한 칭찬도 있지만 지나친 성과주의와 과도한 속도전을 주문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최근 열렸던 한 토론회에서는 "문화 관련 시정 비전과 방침은 훌륭하지만 실현하는 행정 마인드와 사업을 풀어가는 과정이 일방통행이고 기존 방식에서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강시장의 문화정책을 들여다보는 잣대로 광주문화재단의 6개월을 되짚어봤다. 재단은 기존 광주문진위 사업들을 진행함과 동시에 아트페어, 오페스티벌 광주 등 위탁 사업들을 전개했고 기부금도 4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많다. 시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받는 상황에서 100% 독립성을 확보하기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타 지역 문화재단처럼 모델이 없는 시의 신규사업은 속속 재단으로 넘어왔다. 다행히 3D영화제의 경우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지만 여전히 시의 주문과 간섭은 많다.

광주시와 재단은 '자스민 광주'가 광주시, 좀 더 직접적으로 시장과 문화재단의 왜곡된 관계를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 슬펐다는 한 문화계 인사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공무원들도 변해야

요즘엔 시장 주도의 신규사업이 시작될 때마다 불안감이 앞선다. '아리랑 축제'도 마찬가지다. 아무래도 '아리랑'은 아리랑의 고장인 정선(강원도), 밀양(경남), 진도(전남)가 유리하다. 또 박칼린이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주세계소리축제가 탐낼만한 프로젝트다. 광주가 경쟁력이 있을까 의문이다.

시는 조만간 자문위원회를 구성, 기본구상을 세울 모양이다. 제발 이번 만큼만은 시장 지시사항임을 잊고, 백지 상태에서 행사 개최 타당성부터 철저하게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

지나친 속도전과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강 시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대신 시장의 의중에 맞는 안을 짜내기에 급급한 공무원들과 기관들, 그리고 눈도장만 찍으려 하는 일부 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이 변하지 않는 한 문화계 발전은 요원하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강 시장의 변화된 마인드일 것이다.

/문화생활부장 mekim@kwangju.co.kr

기고

오늘밤 더반에 온 국민의 염원을

박덕양

드디어 오늘밤 자정(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도시가 결정된다.

대한민국의 평창, 독일의 뮌헨, 프랑스 안시 등 3개 유치후보 도시들이 유권자들인 115명의 IOC위원들 앞에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유치결의와 타당성을 호소하고 나면 전자비밀 투표방식으로 과반수를 먼저 획득한 유치 후보도시가 대망의 2018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 선정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유치는 범국가적 과제로서 관계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준비해왔다. 지난 5월 18일 IOC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실시된 후보 경쟁도시 마지막 테크니컬 브리핑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조양호 유치위원장, 박용성 KOC 위원장 등과 함께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의 유창한 영어로 꿈을 주제로 한 만족할만한 프레젠테이션을 치러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된다.

한편 지난 2월 성공적인 IOC평가단 평창 현지실사 결과 이미 국제적으로 입소문을 통해 평창이 유리한 입장에 있으며 AP통신도 최근 기사에서 여전히 평창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 하는 등 국제사회는 물론 IOC위원들 사이에서도 평창은 어느 때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유치위·정부·KOC 및 체육계 모두가 일치단결 힘을 모아 기필코 이번에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면 이미 대회를 준비중인 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굵직한 국제스포츠 이벤트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한 단계 더 확실한 도약을 하게 될 것이다.

또 평창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 2000년 FIFA 월드컵 등에 이어 동계 올림픽까지 유치하는 지구촌 여섯번째 국가가 되며, 이는 세계 스포츠계의 꿈인 '트리플크라운'(Triple Crown)의 위업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국력, 경기력, 스포츠 외교력은 물론 성숙하고 세련된 국가 이미지를 만방에 떨치게 되는 것이다.

광주 유니버시아드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시민들에게도 평창의 승리는 국제 스포츠계에서의 대한민국 위상 향상이라는 큰 어드벤티지를 선사할 것이다. 이제 오늘 하루, 자정에 남아공 더반에서 감격의 만세소리가 들려오도록 7000만 국내외 동포 모두의 염원을 꼭꼭 모아 보내자.

〈2015 광주U대회조직위원·전 KOC 국제관계특위위원〉

은펜칼럼

추락하는 지방대, 지역사회 지원 절실하다

최영태

지방 출신 대입 수험생들의 수도권 대학 선호도가 '묻지 마 현상'을 연상케 한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전문대 이상 재학생 27만 명 중 지방 출신이 14만 명이나 된다. 이 숫자를 인구비로 단순 환산하면 한 해에 광주·전남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 숫자가 약 500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것 같다.

지방출신 대입 수험생들의 지방대 기피 및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은 이 지역 대부분의 대학들로 하여금 신입생 충원 문제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학령 아동의 감소로 몇 년 후면 대입 수험생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하니 앞으로 이 지역 대학들 중 몇 개 정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

또 다른 부정적 결과로 지방 명문대의 쇠퇴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의·치·약계통 몇 개 학과가 여전히 경쟁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크게 보면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전주 할 것 없이 지방에서 명문대라고 지칭해 줄 만한 대학이 거의 사라져버렸다.

지방대를 이렇게 쇠락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은 취업 현장에서 지방대 출신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유·무형의 차별이다. 지방대생들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취업에서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고등교육 예산은 GDP 대비 0.6%로 한정된 가운데 수도권 사립대학으로 흘러가는 예산 비중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고, 기업의 기부금 역시 수도권 몇몇 대학들에 집중되고 있다.

지방대를 둘러싼 이런 불리한 조건은 똑같이 100의 노력을 기울여도 지방대는 100 이하의 결과를, 수도권 대학들은 100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이 결과들이 해를 두고 쌓이면서 오늘날처럼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사이의 격차가 만들어졌다.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고,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고 정의로운 사회라면 대한민국 사회는 적어도 대학정책에 관한 한 그런 사회가 아니다. 대학 자체의 노력과 외부적 조건을 대학 발전의 양 날개로 비유한다면 지금 지방대는 한 개의 날개만 가지고 날아다녀야 할 형국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모순들은 외면한 채 오로지 무한경쟁만 부추기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의 관행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교육부를 비롯하여 중앙 정부의 관료들이 자발적으로 지방대 육성책을 내놓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할 것 같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사회가 사실상 날개 하나로 대학을 운영하는 지방대학들에 다른 쪽 날개 하나를 달아주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물론이요, 시민사회와 언론 등이 지방대 육성운동에 나서야 한다. 이런 운동은 광주·전남에서만 일어나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등 지방 곳곳에서 지방대 살리기 운동이 전개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방대 살리기 운동의 내용에는 반드시 GDP 대비 0.6%에 불과한 고등교육 예산과 지방(국립)대 예산을 증액시키고, 지역할당제 등 지방대 출신 졸업생들의 취업 환경을 개선시키며, 대입수험생들의 수도권대학 러쉬 현상을 완화 시킬 선도대학으로서 지방명문대를 부활시킬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김원중씨의 '꿈꾸는 사람만이 세상을 가질 수 있지'라는 노래가 있다. 두 개의 날개로 훨훨 날며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역사회가 손을 잡고 지방대 육성 운동을 전개하자.

〈전남대 교수·역사학〉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늘어나는 조손가정… 교육·경제 지원 프로그램 시급

최근 아이와 함께 놀러온 같은 반 또래 친구의 행동이나 말투가 조금 거칠었다. 주위에 어른들이 있어도 행동을 조심한다거나 전혀 어려워 하지 않았다.

친구가 가고 난 뒤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의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생활한다고 했다. 말로만 듣던 조손 가정 아이였다.

물론 조손 가정 아이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친부모가 없다 보니 가정교육이나 인성교육이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안에 어른이라고는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부 다 보니 손자, 손녀인 아이들이 말도 잘 안 들을 뿐더러 공부나 가정교육도 여의치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아이들 중 일부는 학력저하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심한 경우 탈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요즈음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혼 등으로 가족 해체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조손 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정들 대부분은 수입도 적어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결국 가정의 경제력이 학력의 대물림이 되고, 그 학력이 또다시 부의 대물림이 되게 된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조손 가정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상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경제적 뒷받침도 절실하다.

▲이미경·광주시 북구 태령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사설

광주시-시의회 '힘겨루기' 당장 거두라

요즘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의 행태를 보면 과연 시민의 공복으로서 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 시가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고, 의회 역시 사업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잇따라 예산을 삭감하거나 변경해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민은 물론 외지인들이 무등산과 그 주변을 좀 더 가까이서,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무등산순환버스 운행이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수년째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광주시티투어버스 예산도 잘려 나가 운행이 불투명하다.

무등산순환버스와 시티투어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게 된데는 시와 의회의 소통 부족이 주된 요인이다. 의회는 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 삭감 이유였지만 시가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하지 않은 데 따른 양측의 감정 대립과 힘겨루기라는 지적이다.

또 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려던 '주민 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무산된 것도 양측의 힘겨루기 때문이다. 논의와 설득을 통해 얼마든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는데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행정력 낭비만 한 셈이다.

광주시와 의회 간에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선 5기 들어서만 공개적인 충돌이 3번씩이나 있었다. 이러한 대립이 집행부는 의회에 대해 일방적이거나 '경시'로 비화되고, 의회 또한 예산을 무기로 군림하려 든다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운태 시장은 취임 일성에서 밝힌 '소통'에 대해 스스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의회 역시 집행부에 대한 '군림'이라는 구태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 또한 비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새겨야 한다. 광주시민들이 방관만은 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생 절반 이상이 '등록금 알바생'이라니

최근 한 휴학생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숨진 비극은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겪는 고통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등록금 때문에 학업까지 포기하면서 힘들고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은 요즘 대학생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허리를 휘게 하는 등록금은 대학생들을 알바로 내몰고 있다. 한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이 전국 대학생 23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53.9%가 '등록금을 내고자 알바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19.5%는 '등록금 때문에 휴학하고 일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교재비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한 종전의 알바가 아니다. 오직 등록금을 벌기 위해 수업 이외의 모든 시간을 알바에 바쳐야 하고 수업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도 '미친 등록금' 마련은 턱도 없다.

실제로 광주일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은 하루 9시간 이상 알바를 해도 겨우 3~4만여 원밖에 벌지 못한다. 월 30만 원도 안 되는 알바도 수두룩하다. 알바비만으로 등록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은 방학은 물론 학기 중에도 알바 현장에서 힘든 일을 한다. 학업은 소홀할 수밖에 없고 자격증 취득 등 취업준비를 위한 '스펙 쌓기'는 언감생심이다.

이제 알바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일부 가진 자의 '사치'일 뿐이다. 등록금과 취업난이라는 '이중고'에 허덕이는 우리 젊은이들을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 반값 등록금을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포퓰리즘 논란은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무시한 처사다.

정부의 재정지원이든, 대학의 자진 인하 등 당장 다가오는 신학기부터 등록금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낮춰져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절연과 소통

멕시코의 황제 몬테즈마는 발로 땅을 밟지 않았다. 늘 중신들의 어깨에 올라타고 다녔다. 혹시 내려야 할 때면 땅바닥에 두터운 양탄자를 깔고 그 위를 걸었다. 페르시아 왕도 자기 궁전에서는 늘 양탄자 위만 걸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양탄자 위를 걸을 수 없었다. 외출할 때면 늘 마차에 타고 있거나, 말 잔등에 앉았으며 결코 땅을 밟지 않았다.

옛 우간다의 왕과 왕비들도 그들이 살던 곳 밖으로는 절대로 발을 내딛지 않았다. 혹 멀리 여행이라도 해야 할 때면 체구가 장대한 버팔로족 장정의 어깨 위에 올라타고 다녔다.

20세기 최고의 신화학자 조세프 켐벨(Joseph Campbell)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양탄자'나 '장정의 어깨'처럼 왕의 발이 땅을 딛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를 '절연체(絶緣體)'로 해석하고 있다.

'절대권력자의 내부는 신성한 힘과 주술력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모든 것의 근원인 대지(大地)와 접촉하게 되면 신성한 능력이 순식간에 방전·고갈되어 버린다. 따라서 왕이 힘을 유지하려면 땅과 접촉해서는 안 되며, 땅과의 절연 수단으로써 양탄자나 무동을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이 같은 절연체는 곳곳에 존재한다.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의 일부 지배자들은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돈과 권력, 폭력과 공포라는 절연체를 사용해 힘의 원천인 국민과의 절연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일단 절연체에 구멍이 뚫려 폭발적인 방전이 시작되면, 지배자들은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고 처참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 상식이다.

최근 소통(疏通)이라는 단어에 부쩍 힘이 실리는 듯한 느낌이다. 피지배층과 절연을 시도해 온 세계 곳곳의 다양한 절대권력이 속속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절연보다는 소통에 무게를 두는 추세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소통을 필요로 하는 것은 권력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홍행기 정경부차장 redplane@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